

# numbers 제 54호



## 주요 내용

2020. 07.03

1. 한국 교회 리더십, 디지털 정보 격차 문제에 부딪히다!
2. 1) 체벌하는 한국 부모, 72%  
2) 올 여름 휴가, 코로나19로 인해 '안전한 바캉스 선택' 64%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 목회데이터연구소 주간리포트

홈페이지 | [www.mhdata.or.kr](http://www.mhdata.or.kr)  
E-mail | [mhdata@mhdata.or.kr](mailto:mhdata@mhdata.or.kr)  
전화 | 02.322.0726

## 일반 사회 통계

# 한국 교회 리더십, 디지털 정보 격차 문제에 부딪히다!

현재 우리나라는 1인 1스마트폰 시대에 살고 있다. 2007년 아이폰이 등장한 후 전 세계는 급격하게 스마트폰 중심의 디지털 문화로 전환이 진행되어 왔다. 아마도 코로나19로 인해 그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디지털시대로 전환되면서 소위 디지털 소외 계층이 발생하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그룹이 고령층이다. 과기부에서 발표한 '2019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55세 이상 고령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일반 국민의 64% 수준으로 나타났다. 우리 국민 83%는 앞으로 디지털 정보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 83%는 코로나19가 디지털 시대 전환을 앞당길 것이라 생각하고 있어, 향후 우리 사회에 디지털 정보 격차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개신교인 연령은 한국인 전체 연령과 비교해 볼 때, 약간 더 고령화되어 있다. 한국 교회 리더십 그룹의 연령 역시 상당히 고령화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교회는 일반 사회보다 디지털 정보 격차 문제를 더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 리더십 그룹이 디지털 시대 전환기에 소외 그룹으로 남아 있게 되면 한국 교회 미래도 어두울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목회데이터연구소 [넘버즈] 54호는 코로나 시대의 시대적 화두인 '디지털 정보 격차'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뤄보고자 한다.

##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 자료 출처(생산자)를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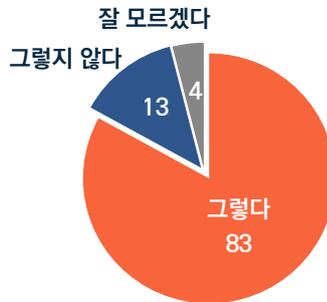
## 코로나 19, '디지털 정보 격차 심화시킬 것이다' 51%

-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현재 디지털 기기나 관련 프로그램 이용에 있어 정보 격차가 얼마나 심각한지 질문한 결과, 우리 국민의 60%가 '심각하다'고 응답하여 '심각하지 않다' (29%)보다 약 2배 이상 높게 나타남
- 또한 향후 우리 사회의 정보 격차에 대해서는 '격차가 커질 것이다' 83%로, 정보 격차 심화에 대한 예상이 지배적임. 특히 '코로나19가 정보 격차를 심화시킬 것이다'는 질문에 51%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우리 국민의 상당수가 코로나19로 인해 정보 격차가 더 벌어질 것으로 예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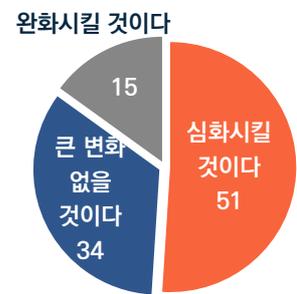
[그림] 현재 디지털 정보 격차 심각도\*\* (%)



[그림] 향후 정보 격차 커질 것이다 ('그렇다' 응답)\*\* (%)



[그림] 코로나19가 정보 격차에 미칠 영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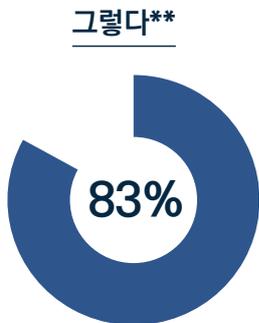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 '포스트 코로나-코로나19와 비대면, 디지털 사회 전환', 2020.06.03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20.05.08-11)

\*\*4점 척도로 긍정률은 '매우+약간', 부정률은 '전혀+별로'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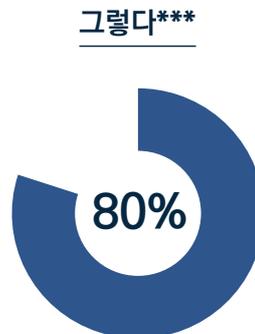
## ● 코로나19, '디지털 시대 전환을 앞당길 것이다' 83%

- 코로나19가 디지털 시대 전환에 미칠 영향에 대해 질문한 결과, 우리 국민 대부분(83%)이 코로나19가 '디지털 시대 전환을 앞당길 것이다' 라고 응답함
- 또한 디지털 시대 전환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국민(80%)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해, 디지털 시대에 대해 크게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코로나19가 디지털 시대 전환을 앞당길 것이다



[그림] 디지털 시대 전환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자료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 '포스트 코로나-코로나19와 비대면, 디지털 사회 전환', 2020.06.03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20.05.08-11)

\*\*6점 척도로 '매우+약간' 수치임

\*\*\*4점 척도로 '매우+약간' 수치임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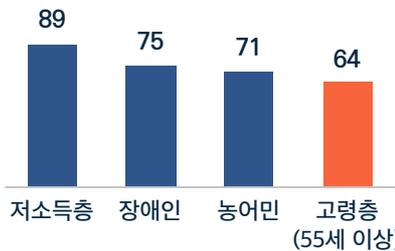
## 고령층(55세 이상)의 디지털정보화 수준, 일반 국민의 64% 수준

디지털정보화 수준이란 유무선 디지털 환경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활용하는 역량을 말함

1. 접근 수준 : 유무선 정보기기 보유 여부 + 인터넷 상시 접속 가능 여부
2. 역량 수준 : pc이용 능력 + 모바일 기기 이용 능력
3. 활용 수준 : 유무선 인터넷 이용 여부 + 인터넷 서비스 이용 다양성 + 인터넷 심화 활용

- 우리 사회에서 4대 정보 취약 계층을 장애인, 저소득층, 농어민, 고령층으로 구분하는데, 정부의 '2019년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결과, 이 4그룹 중 고령층의 디지털 역량이 일반 국민(100% 기준)의 64%로 가장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정보 취약 계층별 디지털정보화 수준(종합\*\*) (일반 국민을 100%이라 가정했을 때 기준) (%)



[그림] 연령별 디지털정보화 수준(종합\*\*) (%) (일반 국민을 100%이라 가정했을 때 기준)



\*자료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화진흥원, '2019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2020.03.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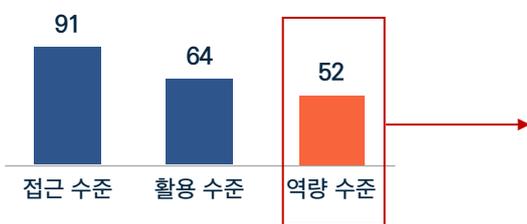
(전국 7세 이상 일반 국민/장애인/저소득층/농어민/북한이탈주민/결혼 이민자 등 총 15,000명, 일대일 개별 면접 조사, 2019.09~12.)

\*\*종합 점수 산출 : 접근 수준(정보기기 보유 여부, 인터넷 접속 가능 여부) + 역량 수준(pc+모바일 이용 능력)+활용 수준(유무선 인터넷 이용, 인터넷 서비스 이용 다양성 등)

### ● 고령층(55세 이상)의 경우, PC/모바일 사용 역량이 일반인의 절반 수준에 머무름

- 고령층의 PC/모바일 보유율이나 인터넷 접속 능력은 일반인 수준에 거의 따라왔는데, 문제는 활용과 사용할 줄 아는 능력의 문제인데, PC나 모바일 사용 역량은 일반인의 52% 수준에 머무름

[그림] 고령층(55세 이상)의 부문별 디지털정보화 수준 (일반 국민을 100%이라 가정했을 때 기준) (%)



[그림] 연령별 디지털정보화 역량 수준 (일반 국민을 100%이라 가정했을 때 기준) (%)



\*자료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화진흥원, '2019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2020.03.05.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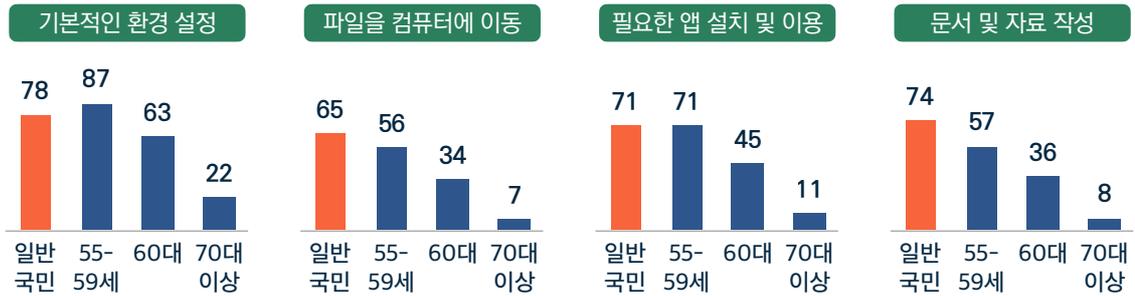


## 모바일 기기 이용 능력, 60대 이후 부터 급격히 하락!

- 모바일 기기 이용과 관련, 60대 연령층의 경우 파일을 컴퓨터에 이동시키는 일, 필요한 앱을 설치하고 이용하는 일, 문서 작성 능력은 50% 이하로 일반 국민과 큰 격차를 보임

[그림] 고령층 모바일 기기 이용 능력(일반 국민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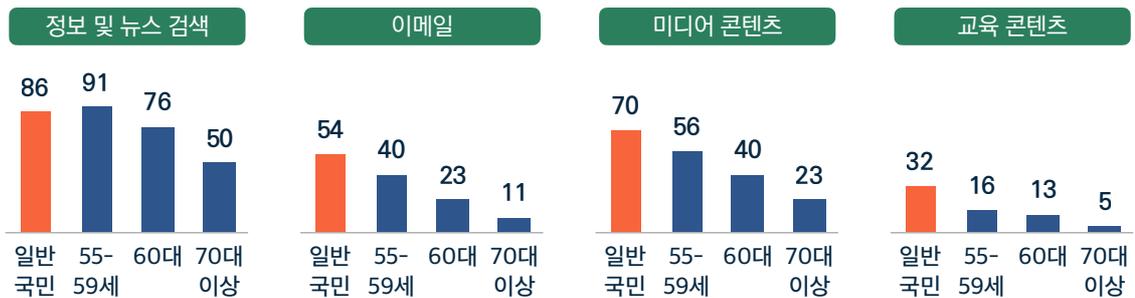


\*자료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화진흥원, '2019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2020.03.05.

### ● 60대 연령층의 이메일 이용률, 일반 국민의 절반에도 못미침

- 고령층의 정보 검색율은 일반 국민과 비교적 근접한 비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이메일 이용의 경우 일반 국민(54%)과 차이가 큰데, 60대 연령은 23%, 70대 이상은 11%로 낮은 비율을 보임

[그림] 연령별 검색/이메일/콘텐츠 이용률(최근 1개월내 인터넷 이용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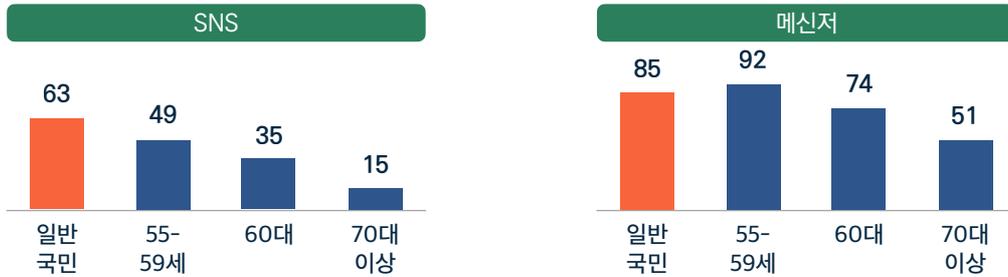


\*자료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화진흥원, '2019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2020.03.05.

## ● SNS 이용률, 60대 3명 중 1명 정도만 이용!

-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 이용률은 일반 국민 63%인데 반해, 60대는 35%, 70대 이상은 15%로 급격히 줄어듦
- 그러나 카카오톡 등 메신저 이용률은 70대 이상도 절반 이상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사회적 관계 서비스 이용률(최근 1개월내 인터넷 이용자 기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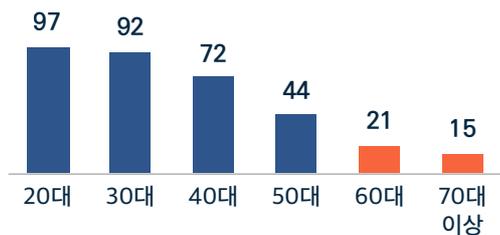


\*자료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화진흥원, '2019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2020.03.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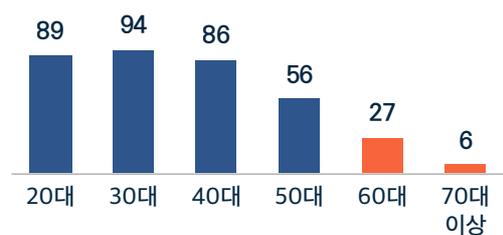
## ● 인터넷 쇼핑/뱅킹 이용률, 60대 이상 총 20%대 이하로 젊은층과 큰 격차를 보임

- 인터넷 쇼핑의 경우 20-30대 젊은층은 90% 이상의 높은 경험율을 보인 반면, 60대 이상 층은 20%대 이하의 낮은 경험율을 보임
- 인터넷 뱅킹 역시 60대 이상 층은 20%대 이하로 50대 이하 연령대와 큰 격차를 보임

[그림] 인터넷 쇼핑 경험률 (%)



[그림] 인터넷 뱅킹 경험률 (%)



\*자료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화진흥원, '2019 인터넷 이용실태조사' 2020.03. (전국 만3세 이상, 60,254명, 가구방문 면접조사, 2019.08.05.~09.30)

## ● 인터넷 통한 사회적 활동, 고령층은 아직 미약함

- 인터넷 통한 여러 사회적 활동에 대해 60대 이상 고령층은 30%대 이하로 아직까지는 온라인 상에서의 활동에 대해 익숙하지 않음

[그림] PC 및 모바일 기기 이용 시민 역량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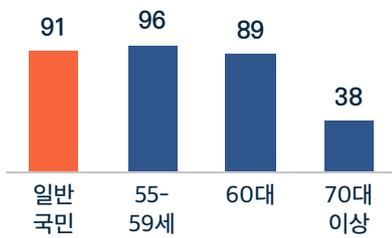


\*자료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화진흥원, '2019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2020.03.05.

## ● 70대 이상 고령층 스마트폰 보유율 38%

- 스마트폰 보유율을 살펴보면, 일반 국민이 91%인데 반해, 60대는 일반 국민과 큰 차이없는 89%이지만, 70대 이상으로 넘어가면 38%로 뚝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남

[그림] 스마트폰 보유율 (%)



[그림] 이용 가능한 PC보유율 (%)



\*자료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화진흥원, '2019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2020.03.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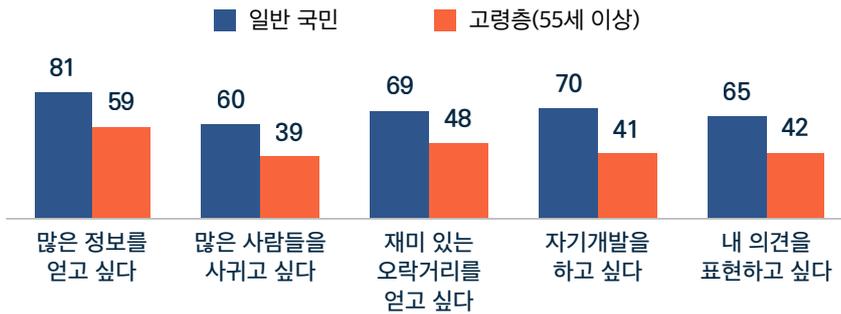
4



## 고령층의 디지털 기기를 통해 얻고자 하는 욕구, 일반 국민 대비 상대적으로 약함

- 디지털 기기 이용 목적에 대해 정보 습득, 사람 사귀, 오락거리 얻음, 자기개발 등에 대해 일반 국민보다 욕구가 강하지 않음

[그림] 디지털 기기 이용 목적 (4점 척도, '매우+약간' 그렇다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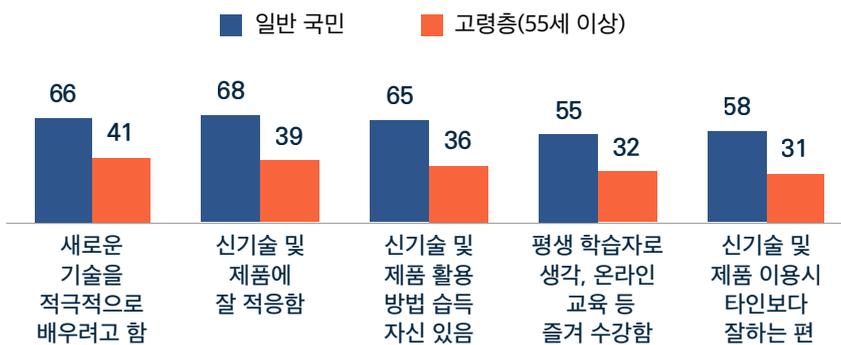


\*자료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화진흥원, '2019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2020.03.05.

### ● 또한 고령층은 디지털 기기를 접하는 태도가 소극적이고 자신 없어함

- 디지털 기기 이용에 대한 태도 관련 몇 가지 속성을 제시한 후 각각에 대해 4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전체적으로 고령층은 일반 국민 대비 디지털 기기에 대해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한편으로 자신 없어 하는 태도를 보임

[그림] 디지털 기기 이용 태도 (4점 척도, '매우+약간' 그렇다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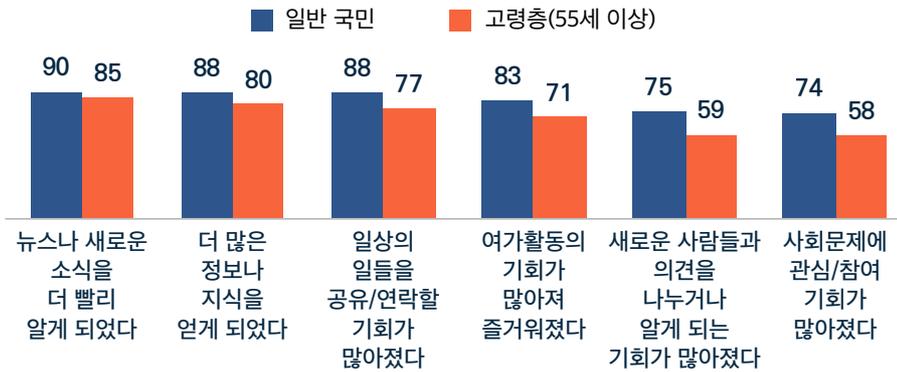


\*자료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화진흥원, '2019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2020.03.05.

## ● 그러나 실제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후 얻은 성과는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남

- 고령층의 디지털 기기 이용 성과에 대해 몇 가지 속성을 제시하고 4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더 많은 정보 얻음' 80%, '여가활동의 기회 많아짐' 71%, '일상의 일들 공유/연락할 일 많아짐' 77% 등으로 이용 후 성과는 높게 평가함

[그림] 디지털 기기 이용 성과 (4점 척도, '매우+약간' 그렇다 비율) (%)



\*자료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화진흥원, '2019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2020.03.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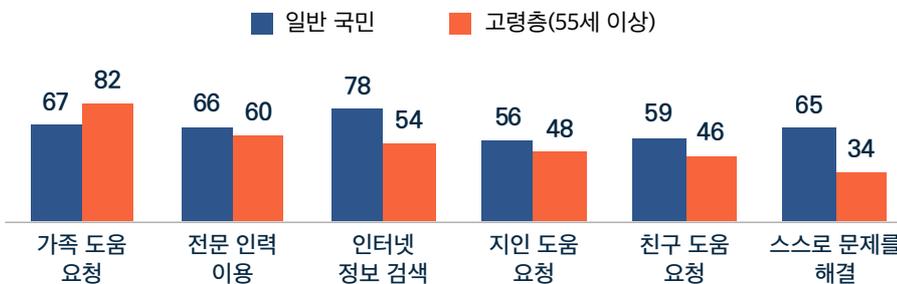
### 5



## 고령층의 디지털 기기 이용 시 문제 해결 방법, '가족 도움 요청' 82%

-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다 잘 모르거나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결하는지 몇 가지 속성을 제시하고 4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고령층의 경우 '가족 도움 요청'이 8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전문 인력 이용' 60% 등의 순임
- 반면, 일반 국민은 '인터넷 정보 검색'을 통해 해결하는 비율이 78%로 가장 높음
- 따라서 정보 격차가 큰 고령층의 경우 교회에서 '청소년/청년 - 고령자' 매칭 프로그램을 통해 일대일로 도와주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그림] 디지털 기기 이용 시 문제해결 방법 (4점척도, '매우+약간' 그렇다 비율) (%)



\*자료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화진흥원, '2019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2020.03.05.



## 시사점

2000년대 초반 유비쿼터스(ubiquitous)라는 용어가 유행했던 적이 있다. 유비쿼터스(ubiquitous)란 ‘(신은) 어디에나 널리 존재한다’는 의미인데 ‘동시에 어디에나 존재하는’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나 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다양한 정보통신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의미한다. 유비쿼터스 세상이 되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서서 그만큼 시간과 노력을 줄여주게 되어 남은 시간만큼 더 많은 일을 하거나 취미를 즐기거나 평소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므로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기대에 가득찼었다.

그런데 유비쿼터스라는 용어가 최근에는 들리지 않는다.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유비쿼터스 세상을 활짝 열어젖혔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용어가 화제가 될 이유가 없어진 것이다. 스마트폰을 통해 검색, 쇼핑, 금융, 음악, 영화, 동호회 활동 등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은 편리함이 극대화된 세상이다.

이제 유비쿼터스를 실현한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정보화 세상은 이전의 세상과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었다. 이 흐름은 다시 되돌릴 수 없다. 그런데 이 흐름에서 비껴난 사람들이 있다. 디지털 정보화 기기 혹은 그 기술을 쫓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디지털 기술 환경에서 소외된 대표적인 사람들이 고령층이다. 어느 날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분이 다가 와서 어떤 문서를 지금 급히 보내야 하는데, 스마트폰으로 보낼 수 있다고 들었지만 어떻게 보내는지 모른다고 도와 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있다. 마치 무슨 잘못을 저지른 것 같은 그분의 표정과 말투에 민망했던 경험이 있다. 이처럼 디지털 기술에서 소외된 분들은 새로운 기술의 이점을 누리지도 못할 뿐 아니라 그런 기술을 피하게 되고, 그 기술 앞에서 다른 사람들의 눈길을 의식하게 된다. 사회적으로도 위축되는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사역을 강화하는 교회가 많다. 온라인 예배 외에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를 개발하여 제공한다. 그런데 이런 흐름에서 고령층은 소외되고 박탈감을 느끼기 쉽다. 교회의 디지털화는 피할 수 없는 추세라서 교회는 이에 대처를 잘해야 하지만 동시에 고령층 교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 이분들이 디지털 문맹이 되지 않도록 교육을 하거나 시연을 해서 디지털 문화에 익숙해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리더십 그룹을 꼽으라면 각 교단별 총대를 들 수 있다. 그런데 총대의 평균 연령이 60세가 넘는다. 총대의 절반 이상이 60세 이상 층이다. 개 교회의 당회원 연령 구성도 이와 비슷할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급속하게 전환되는 디지털 시대에 앞으로 고령층의 디지털 소외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보이는데, 한국 교회 리더십들이 직접적으로 이 문제에 부딪힐 것 같다. 연령간 디지털 정보 격차가 커질수록 한국 교회 리더십들이 다음 세대를 이해한다는 것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이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 교단/개교회 별로 필요하다. 예컨대 교회에서 중고생 또는 청년층과 고령층을 1:1로 매칭하여 디지털 정보 격차를 줄이는 방안도 생각해 볼 적하다.

## 최근 언론 보도 통계

- 체벌하는 한국 부모, 72%
- 올 여름 휴가, 코로나19로 인해 '안전한 바캉스 선택' 64%

## 언론 보도 및 이슈 큐레이션

최근 들어 아동학대 기사가 빈번하게 나오고 있다. 초등생 딸을 쇠사슬로 목을 묶어 테라스에 가두고 불에 달군 프라이팬으로 손가락에 화상을 입히는 등의 학대, 의붓엄마에게 7시간 동안 여행 가방에 갇혀 결국 숨진 초등생... 이 보도들을 접하면서 국민적인 공분이 일었다. 이와 관련 체벌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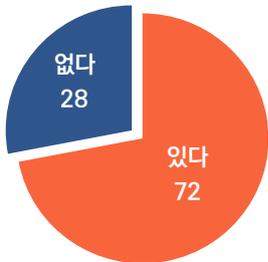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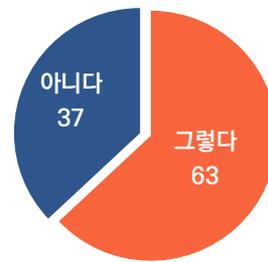
## 체벌하는 한국의 부모, 72%

- 조사 전문 기관 ‘털리언프로’가 부모의 자녀 체벌 경험에 대해 질문했는데, 한국 부모의 72%가 ‘체벌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사랑의 매가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63%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는데, ‘체벌 경험율’ 72%와 비슷한 수준임

[그림] 체벌한 경험(자녀있는 부모 대상) (%)



[그림] ‘사랑의 매’는 있다고 생각한다(전체 응답자 대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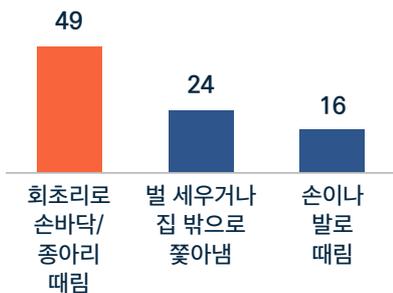


\*자료 출처 : 조선일보, ‘체벌... 한 대는 사랑의 매고, 세 대는 학대입니까?’, 2020.06.20. (전국 성인 20~60대 남녀, 총 5044명, 부모는 2648명)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9/2020061903001.html](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9/2020061903001.html)

### ● 체벌 부모, “체벌한 뒤 후회한다” 75%

- 자녀 체벌 방식에 대해서는 ‘회초리로 손바닥/종아리 때림’이 49%로 절반을 차지함. 또한 ‘벌 세우거나 집 밖으로 쫓아냄’ 같은 비신체적 체벌은 24%, ‘손이나 발로 때림’ 같은 폭력적 수준의 체벌은 16%로 나타남
- 자녀를 체벌한 적이 있는 부모 넷 중 셋(75%)은 ‘체벌한 뒤 후회한다’고 응답하여 체벌에 대한 후회 감정이 함께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됨

[그림] 자녀 체벌 방식(상위 3위) (%)



[그림] 체벌한 뒤 후회한다(체벌 경험 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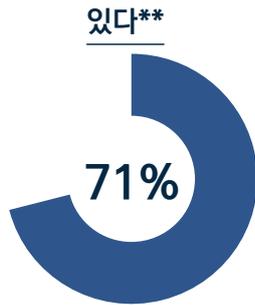


\*자료 출처 : 조선일보, ‘체벌... 한 대는 사랑의 매고, 세 대는 학대입니까?’, 2020.06.20. (전국 성인 20~60대 남녀, 총 5044명, 부모는 2648명, 온라인 조사)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9/2020061903001.html](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9/2020061903001.html)

## ● 어린 시절 체벌, ‘경험 있다’ 71%(현 체벌율 72%와 비슷)

- 어린 시절 체벌 경험은 71%로 나타났는데 공교롭게도 현재 체벌율(72%)과 비슷한 수치를 보임
- 본인이 경험한 체벌 중 학대라고 생각한 체벌에 대해서는 ‘손이나 발로 때리기’를 56%로 가장 많이 꼽았고, ‘회초리가 아닌 도구로 손바닥, 종아리 때리기’ 38%, ‘벌 세우기’35%, ‘회초리 손바닥/종아리 때리기’ 33%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어린 시절 체벌 경험 (%)



[그림] 본인이 받은 체벌 중 학대라고 느낀 것(중복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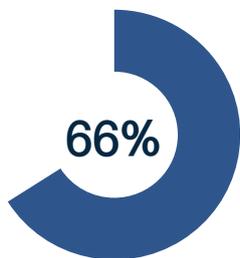
\*자료 출처 : 조선일보, ‘체벌... 한 대는 사랑의 매고, 세 대는 학대입니까?’, 2020.06.20. (전국 성인 20~60대 남녀, 총 5,044명, 부모는 2,648명, 온라인 조사)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9/2020061903001.html](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9/2020061903001.html)

## ● 체벌, ‘내 자녀 훈육에 효과 있다’ 66%, ‘자신의 어린 시절 체벌이 훈육 효과 있었다’ 35%

- 체벌의 훈육 효과에 대해서는 ‘자녀 훈육에 효과 있다’ 66%, 부모 자신의 어린 시절 체벌 경험에 있어서는 ‘훈육에 효과 있었다’ 35%로 두 응답 간에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났는데, 이는 자신이 받은 체벌은 효과가 없었지만 자신이 하는 체벌은 효과가 있다는 상반된 인식이 나타난 것으로 해석됨

[그림] 체벌의 훈육 효과

자녀 훈육에 효과 있었다



본인 어린 시절 체벌이 훈육에 효과 있었다



\*자료 출처 : 조선일보, ‘체벌... 한 대는 사랑의 매고, 세 대는 학대입니까?’, 2020.06.20. (전국 성인 20~60대 남녀, 총 5,044명, 부모는 2,648명, 온라인 조사)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9/2020061903001.html](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9/2020061903001.html)

2



## 올 여름 휴가, 코로나19로 인해 '안전한 바캉스 선택' 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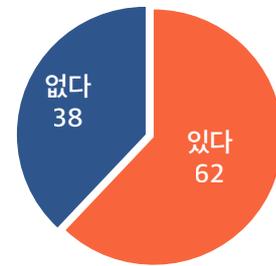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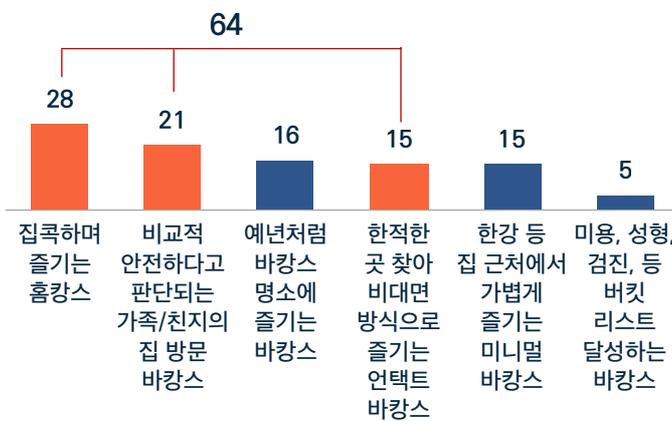
- 올 여름 선호하는 바캉스에 관해 질문한 결과, '집콕하며 즐기는 홈캉스'가 28%로 가장 높았고 '비교적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가족/친지의 집 방문 바캉스' 21%, '한적한 곳 찾아 비대면 방식으로 즐기는 언택트 바캉스' 15%로 나타나, 전체 응답자의 64%가 코로나19로 인해 안전성을 중시하는 형태의 선호도가 높았고, '예년처럼 바캉스 명소에서 즐기는 바캉스'는 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올 여름 바캉스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있다' 62%, '없다' 38%로 나타남

[그림] 올 여름 선호하는 바캉스 형태 (%)

(%)

[그림] 올 여름 바캉스 계획 유무 (%)

(%)



\*자료 출처 : 조선일보 아무튼주말, '홈터파크 물놀이, 홈시어터 심야영화... 올 여름은 홈캉스가 대세', 2020.06.27.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26/2020062603021.html](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26/2020062603021.html) (전국 20~60대 성인 남녀 5,038명, 온라인 조사)

### ● 바캉스 계획이 없는 이유,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서' 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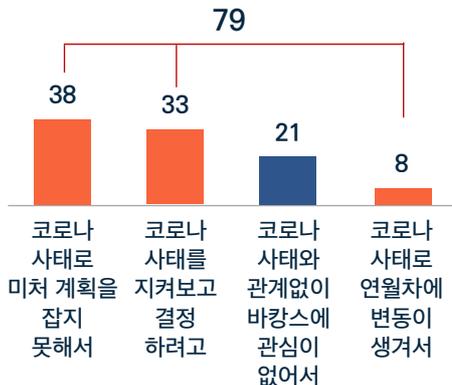
- 바캉스 계획이 없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어본 결과, '코로나 사태로 미처 계획을 잡지 못해서' 38%, '코로나 사태를 지켜보고 결정하려고' 33%, '코로나 사태와 관계없이 바캉스에 관심이 없어서' 21% 등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코로나가 바캉스 계획에 영향을 준 응답 비율이 무려 79%나 됨
- 반면 바캉스 계획이 있는 응답자에게 희망 기간을 물어본 결과, '8월 초'가 30%로 가장 높았음

[그림] 올 여름 선호하는 바캉스 형태 (%)

(%)

[그림] 올 여름 휴가 계획 기간

(바캉스 계획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



\*자료 출처 : 조선일보 아무튼주말, '홈터파크 물놀이, 홈시어터 심야영화... 올 여름은 홈캉스가 대세', 2020.06.27.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26/2020062603021.html](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26/2020062603021.html) (전국 20~60대 성인 남녀 5,038명, 온라인 조사)

3



## 언론 보도 통계 큐레이션 및 이슈 큐레이션

###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코로나 19  
관련

[전세계 30개 도시, 한국정부의 코로나19 대응 평가 조사](#)

매일경제\_2020.06.30.

[확진 20代가 최다... 男보다 女가 더 잘 걸려](#)

연합뉴스\_2020.06.30.

[코로나 이후 장애인 부모 조사 : 장애인 생활패턴 부정적으로 변화](#)

세계일보\_2020.06.30.

[베이비부머 26만명, 코로나로 인한 '강제은퇴' 급증](#)

매일경제\_2020.06.28.

경제

[주거 양극화 통계](#)

세계일보\_2020.07.01.

[중소기업 근로자 고령화 심각\(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연령 비교\)](#)

조선일보\_2020.06.29.

일반 사회 / 기타

[학교 밖 청소년 실태](#)

세계일보\_2020.06.28.

[세계는 지금 기후변화 열공중... 기후위기 '배워야 산다' 더 늦기 전에](#)

한겨레신문\_2020.06.28.

["김정은 정권 신뢰한다" 15.7%...통일연구원 여론조사](#)

이데일리\_2020.06.26.

[50대부터 근육 행겨야 팔팔한 노년.. 운동·단백질 섭취 필수](#)

국민일보\_2020.06.30.

### 스토리가 있는 기사 큐레이션

[한국의 노인 치매 실태](#)

조선일보\_2020.07.01.

[코로나 이후 세계경제 예측 : "세계경제 2년간 1경5000조원 증발"... 백신없이 회복 불가능](#)

조선일보\_2020.06.29.

## 역대 주간 리포트 주요 내용

- 제 1호 | 인구 절벽, 그리고 개신교 인구 변화
- 제 2호 | 대한민국은 갈등 공화국(사회적 신뢰도, 갈등지수) | 종교 스위칭
- 제 3호 | 모바일 시대가 온다(개신교인 미디어 이용 실태) | 청년층 운세보기 | 황혼 이혼
- 제 4호 | 나홀로 Life, 나는 혼자여도 좋다 | 함께 일하고 싶은 리더
- 제 5호 | 다문화 가족, 그들도 우리의 이웃이다(이주 여성 실태) | 북한 비핵화 인식
- 제 6호 | 위기의 크리스천 대학생(대학생 종교 실태) | 불법 촬영(몰카) 실태
- 제 7호 | 하루 13명, 술 때문에 죽는다(음주실태) | 청년 취업 실태
- 제 8호 | 여름휴가, 어떻게 보내십니까(교회 수련회 통계) | 남성 육아 휴직
- 제 9호 | 유튜브 홀릭 | 한일 분쟁
- 제 10호 | 흡연, 성인 남성 하루 100명 죽는다 | 55세 이상 고령층 취업 희망자
- 제 11호 | 크리스천 4명 중 1명, 교회 안 나간다 | 한국인, 정신·심리 관련 조사
- 제 12호 | 북한이탈주민, 연 가구 소득 2,000만 원 미만 40% | 2019 대한민국 영향력 있는 인물 순위
- 제 13호 | 추석, 즐겁지만 여성에게는 힘든 명절, 89% | 2040 아빠 육아경험, 고령화 통계
- 제 14호 | 한국인, 인간관계를 축소하고 있다 | 합계 출산율, 전국 초중생 방과후 학원 이용 실태
- 제 15호 | 한국인 행복도, '돈'에 과도하게 영향받고 있다 | 임금 근로자 연봉 상하위 격차 14.4배
- 제 16호 | 한국인 1일 37명 자살 | 우리나라 기부 참여율 40%(최근 1년간)
- 제 17호 | 장애인, 문화 활동 거의 못하고 있다 | 한국 부자 보고서 분석
- 제 18호 | 장애인 실태 2, '장애인 근로자, 고용 기업의 만족도 높다!' | 미국 크리스천의 담임 목사 인식 조사, 한국 국가 경쟁력 순위
- 제 19호 | 한국 사회 혐오, 심각하다 96% | 100세 시대 인식조사
- 제 20호 | 특별판(1-19호) 종합 정리
- 제 21호 | 개신교인, 전광훈 목사 긍정적 평가 13% | 한국 사회 공정성 평가 조사
- 제 22호 | 당신은 '꼰대' 입니까? | 문재인 대통령 임기 반환점, 주요 여론조사 통계
- 제 23호 | 학벌 중심 사회, 국민 절반 가까이 학력 콤플렉스 '느낀 적 있다' | 평생직장 인식 변화, 우리나라 커피 소비 인식 조사 결과
- 제 24호 | 가족 호칭, '가부장 문화가 반영됐다' 72% | 한국인이 좋아하는 인물편(분야별)
- 제 25호 | 한국인의 결혼·가정관 빠르게 변하고 있다 | 한국인이 좋아하는 브랜드(일반 국민 vs 개신교인 비교), 우리 국민 절반은 '나는 가난하다' 생각한다)
- 제 26호 | 개취를 아십니까? | 전세계 기독교 청년의 교회 인식 조사, 한국인의 기대 수명
- 제 27호 | 한국인의 기부, 불투명성이 발목을 잡는다! | 2019 초중등 진로 교육 현황 조사 결과, 1인당 노동소득과 소비 간 비교
- 제 28호 | 2019 [넘버즈] Top 7
- 제 29호 | 2020년 1인 가구 대세 시대 | 미국 크리스천, 교회 출석 이유, '목사의 설교 내용' 절대적임, 한국 사회, 빈익빈 부익부 현상 뚜렷하게 나타남
- 제 30호 | 50년 뒤 한국, '국민 2명 중 1명이 노인!' | 한국인 새해 경기 및 살림살이 전망, 작년 전국시도지사 직무 평가 결과

## 역대 주간 리포트 주요 내용

- 제 31호 |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찾는 대상, '가족' | 2020 새해 목표, 성격 변화
- 제 32호 | 이제는 착한 소비의 시대! | 2019년 한국 파송 선교사 현황, 한국인 4명 중 1명 '사소한 일에 화가 난다'
- 제 33호 | 빅데이터로 본 2019 한국 교회 | 10대 청소년, 관심·흥미 주제 찾을 때, 유튜브가 압도적, 한국인 5명 중 1명 '종종 소외감을 느낀다'
- 제 34호 | 생활의 기쁨, 가족보다 '반려동물'에서 더 얻는다! | 코로나19 사태가 가져온 일상의 변화
- 제 35호 | 외로운 대한민국, 한국인 고독 지수 78점 | 밀레니얼 세대 직장인 분석
- 제 36호 | 코로나19 관련 개신교인 여론조사 결과 분석 | 코로나19 관련 국내 주요 신학교 권고의 글 모음
- 제 37호 | 가짜 뉴스, 심각하다 89% | 총선 40일 현재 국민 여론
- 제 38호 | 한국인, 부자가 가난한 자보다 오래 산다! | 우리나라 헌혈 통계 분석, 코로나19 이후 일상의 변화들
- 제 39호 | 한국인 정치 만족도 16% | 우리나라 대학생 81%, 고등학교는 사활을 건 전장, 미혼자, '주례 없는 결혼식' 선호도 67%
- 제 40호 | 악플도 범죄다, 65% | 코로나19 이후 마스크 5부제 찬성 68%
- 제 41호 | 성인 2명 중 1명, 사이버 폭력 '피해 경험 있다' | 우리 국민 필수와 선택
- 제 42호 | '코로나 19의 한국 교회 영향도 조사' 결과
- 제 43호 | 코로나19 이후 한국 사회 신뢰도 올랐다! | 40년간 국내 주요 물품/서비스 가격 변화, 한국인의 의심병
- 제 44호 | 한국의 여성 가사노동, 부담스럽다' 57% | 코로나19 관련 미국 여론조사 분석 결과
- 제 45호 | 한국의 아동 행복도, OECD 최하위권! | 21대 총선 결과 분석
- 제 46호 | 한국의 부모, '다시 태어나도 내 자녀의 부모로 태어나고 싶다' 69% | 코로나19 관련 6개국 비교 조사 결과, 외모·성형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
- 제 47호 | 우리의 가난한 이웃, 한부모 가정 | 기혼자 30%, 불륜 경험 '있다', 트로트 매력 '친근한 멜로디' 32%
- 제 48호 | 우리들의 아버지, 대한민국의 퇴직자들의 삶 | 포스트 코로나 시대, 통계로 보는 언택트 사회 전망
- 제 49호 | 새로운 소모임 공동체 살롱 문화의 부활! |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조사, 역사 왜곡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 제 50호 | 우리 사회 갑질, '심각하다' 86% | 코로나가 가져온 식품 소비의 변화, 미국 개신교인들의 목사 설교 시간에 대한 인식
- 제 51호 | 일반 국민, 온라인 종교 활동 '삶에 긍정적 변화다' 53% | 코로나 이후 직장인 점심식사 관련 인식 변화, 최근 10년 간 범죄 유형의 변화
- 제 52호 | 코로나19에 대한 목회자 인식 조사 결과(예장통합 교단)
- 제 53호 | 한국 교회 유튜브 최다 조회수는 '찬양 콘텐츠!' | 한국인 5명 중 1명 '외롭다', 교회 학교 여름 사역 계획 조사

# 목회데이터연구소 후원자

**후원 교회** | 강남중앙침례교회, 거룩한빛광성교회, 고현교회, 노량진교회, 당진동일교회, 백주년기념교회, 서현교회, 서울서문교회, 성락성결교회, 소망교회, 송학대교회, 수원중앙침례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오륜교회, 이룸교회, 일산광림교회, 주안장로교회, 진주삼일교회, 창동염광교회, 한소망교회(가나다 순)

**후원 기관** | 고려신학대학원, 광주지식포럼, (사)사단법인아시아미션, (사)새길과새일, 알파코리아,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장로회신학대학교, 한목회, 제이제이경제연구소, 지앤컴리서치, 한국교회탐구센터,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빛누리, (재)CBS, CCC 사역연구소, (가나다 순)

**후원 기업** | (주)그랑블루, 동광에스아이, (주) 마뜨, (주)바이텍테크놀로지, (주)셀파 C&C, (주)시스코프, (주)예종세무법인, (주)참튼건강과학, (주) 트로인, (주)하츠, 한국피스메이커(가나다 순)

**후원 개인** | 고재환, 금교성, 김명준, 김상근, 김상래, 김성렬, 김성은, 김영훈, 김윤철, 김은선, 김재욱, 김주룡, 김현모, 김형태, 김홍일, 남성태, 류지성, 박노석, 박미경, 박영철, 박준상, 박진철, 박우빈, 박세용, 박홍래, 반기민, 배수정, 석승호, 송섭, 안태근, 엄정석, 유성민, 유형창, 윤여민, 이병희, 이만민, 이미경, 이완종, 이영선, 이인성, 이정규, 이창준, 이춘봉, 이현식, 이훈희, 임현주, 장명희, 장우성, 장병우, 장형철, 정종섭, 정준, 전치영, 정희수, 조창오, 최상헌, 최준혁, 최은아, 함용태(가나다순)

**MOU 기관** |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교단총회, 마크로밀엠브레인, 문화선교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 후원 방법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2.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직접 계좌 송금으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안내 : 하나은행 203-910046-18604(목회데이터연구소)

# 목회데이터연구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8길 17 현빌딩 2층

## 미션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 섬기는 이들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담임목사)

신원하 교수 | 연구자문위원장(고려신학대학원 원장)

## 만든 이들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 [ykji@mhdata.or.kr](mailto:ykji@mhdata.or.kr)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marpro@mhdata.or.kr](mailto:marpro@mhdata.or.kr)

김준영 | 목회데이터연구소 연구원 | [jy0113@mhdata.or.kr](mailto:jy0113@mhdata.or.kr)